

정부 입장료 폐지 '난색'

조계종-내무부 등 4자 실무회의 의견조율 못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등과 관련 조계종과 내무부 문화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자 실무회의가 9일 오후 3시에 열린 것 으로 알려졌다. <권경기사 2면>

조계종 총무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4자 실무회의에서 △문화재관리료와 공원입장료의 인상이 실효 없는 △공원입장료의 문화재 수리보존비

와 지류규정을 자연공원법에 강제규정의 △공원입장료와 △공원입장료의 폐지 관련 등 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 가운데는 상당한 의견차가 있어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음을 밝히며 "공원입장료 폐지 등 중대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4자 실무회의는 조계종이 10월 15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문제 해결의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안 상제가 약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무부가 공원입장료의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국립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 문화부, 내무부 등 4자 실무회의는 9일 오후 3시에 열린 것 으로 알려졌다.

"21세기 대장경 만들자" 성황

대행스님 부산법회 3만여명 동참... 3억5천만원 모금

한양선원 부산지원(지음장 예도) 정경도당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홍익) 불교부산방송(지사장 유정수)이 공동 주관하는 '21세기 대장경 만들자' 행사가 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간 부산시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해종스님(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안스님(영주갑

주지) 등 대덕스님들과 조순 민주당총재, 윤경수 부산시장, 권익현 한국외국교회장, 손하규 주미에 이규진 의원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한양선원장)은 "살은 썩기 아니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속의 모든 행위가 자성(自性)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자"고 모든 경계에 초탈하

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만대장경 전산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이 5천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한 것을 비롯 법안스님들과 윤경수시장 등 많은 대중들이 동참, 헌정헌수금과 약정금액을 합쳐 총 3억5천여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됐다.

한양선원 부산지원(지음장 예도) 정경도당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홍익) 불교부산방송(지사장 유정수)이 공동 주관하는 '21세기 대장경 만들자' 행사가 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간 부산시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해종스님(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안스님(영주갑

주지) 등 대덕스님들과 조순 민주당총재, 윤경수 부산시장, 권익현 한국외국교회장, 손하규 주미에 이규진 의원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한양선원장)은 "살은 썩기 아니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속의 모든 행위가 자성(自性)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자"고 모든 경계에 초탈하

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만대장경 전산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이 5천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한 것을 비롯 법안스님들과 윤경수시장 등 많은 대중들이 동참, 헌정헌수금과 약정금액을 합쳐 총 3억5천여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됐다.

한양선원 부산지원(지음장 예도) 정경도당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홍익) 불교부산방송(지사장 유정수)이 공동 주관하는 '21세기 대장경 만들자' 행사가 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간 부산시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해종스님(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안스님(영주갑

주지) 등 대덕스님들과 조순 민주당총재, 윤경수 부산시장, 권익현 한국외국교회장, 손하규 주미에 이규진 의원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한양선원장)은 "살은 썩기 아니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속의 모든 행위가 자성(自性)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자"고 모든 경계에 초탈하

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만대장경 전산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이 5천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한 것을 비롯 법안스님들과 윤경수시장 등 많은 대중들이 동참, 헌정헌수금과 약정금액을 합쳐 총 3억5천여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됐다.

한양선원 부산지원(지음장 예도) 정경도당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홍익) 불교부산방송(지사장 유정수)이 공동 주관하는 '21세기 대장경 만들자' 행사가 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간 부산시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해종스님(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안스님(영주갑

주지) 등 대덕스님들과 조순 민주당총재, 윤경수 부산시장, 권익현 한국외국교회장, 손하규 주미에 이규진 의원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한양선원장)은 "살은 썩기 아니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속의 모든 행위가 자성(自性)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자"고 모든 경계에 초탈하

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만대장경 전산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이 5천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한 것을 비롯 법안스님들과 윤경수시장 등 많은 대중들이 동참, 헌정헌수금과 약정금액을 합쳐 총 3억5천여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됐다.

한양선원 부산지원(지음장 예도) 정경도당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홍익) 불교부산방송(지사장 유정수)이 공동 주관하는 '21세기 대장경 만들자' 행사가 9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간 부산시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해종스님(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안스님(영주갑

주지) 등 대덕스님들과 조순 민주당총재, 윤경수 부산시장, 권익현 한국외국교회장, 손하규 주미에 이규진 의원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한양선원장)은 "살은 썩기 아니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속의 모든 행위가 자성(自性)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자"고 모든 경계에 초탈하

현대불교 "참회하는 삶 위한 마음(心) 정진(力)"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마음(心)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한다. 참회기도도량 삼각산(도선사·주지 동광)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처음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하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상례를 위해 평생 번민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명의 상징이다. 평소 3000배 기도암이 있었지만 암투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안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포를 드립니다.

- 행사 안내**
- △일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 4시
 - △회 형: 11월 21일(일) 오전 5시(새벽예불후)
 -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
 - △참석인원: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 △종량비: 5천원
 - △일 정: 입재식→5백배씩 하고 10분씩 휴식→저녁공양 간식공양→4백배예불→회향식
 -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따뜻한 길옷
 - △접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 △문의전화: 국민은행 (02)21-0631-145(예금주 최상철)
 - (입금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나 단체단위로 참가하시면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 *건강이 파리지 않는 분들은 앉아서 동참하는 방법도 공력이 된다고 해 백선열스님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동참의욕이 귀하다 하셨습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도선사 후원: 한국불교포럼연합회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품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담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원 겨냥할 수록 집중과 심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공모 내용**
-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 량: 2매지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처: 서울시 중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 △시상내용:
 - 유아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제달)
 - 중년합의회대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제달)
 - 본사사당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내가 이미 열살때 음, 감나무 아래서 달걀이 모이를 쪄고 있는 꼴이 나와 놀고 있었다. 북바소리가 들려 대문밖을 보니 탁발스님이 열리진 문간에서 계셨다. 어머니께서도 장한 외출하시고 장에는 나 혼자 뿐인데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들어 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다. 교회에 다녀면서 불교는 우상을 믿는 나쁜 종교라고 철저히 배웠으며 스님을 보면 파꺼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반으로 담안하고 담안하고 있었다. 수하이랑에 있어 가던 장안에 방을 들어놓는 순간부터 신계임을 어진 죄인으로 여겨져 죄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때 세례를 받았으면서 내가 죄안인가를 모르면서 무조건 죄안이니 용서해 달라는 신앙고백을 했다.

그러다가 1963년 미국에 유학을 온 뒤 남편이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영종대법회

선동호 준 크리슈나무르티의 저서 <교육과 인생의 의미>에서 진리와 영성신 종교가 갖춰야 할 4가지 특성을 소개하며 내가 따르는 길만이 세안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 종교들의 가르침을 공부했다. 특히 남편의 영성으로 신(神)에 접근하였다. 그후 1992년 미국에 오신 참회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 우주의 상라만상이 곧 참회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리가 가능하다는 통찰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



김 옥 구

'나' 버리려고 매일 염념참회

그간 나를 애써 했던 공과 지비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그 기쁨으로 보살계를 받고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내가 본래 부처인 그 자리에서 아이따불을 말하는 열행선을 하고 있다. 부처가 부처를 염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들여다 보면서...

염념수행은 우리가 순간순간을 받아들여서 살고, 순간순간 통찰대비를 삼행토록 하기위해서이며 염념은 나로 하여금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 자신을 불적마다 참회무참할 뿐이다. 실사 불교를 만나기 이전의 특례논리에 따른 편협함과 위대성은 아닐지라도 합·정·치 3덕 버리를 추구하게 되니 말이다.

이 생(生)에서 내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는 감히 버리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기쁘기를 버리는 차를 하나 놓고 매일 염념수행인 염념참회를 하고 있다. (서미 시인)

구독료납부 은행지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일런마당 - 북돋기 교계창구 21면

한글이름 집 '눈에 띄네' 23면

단풍따라 익는 가을불심 11면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PCS 016과 함께 하는 불교통신사업입니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이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낸 요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지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인천지사 062-375-9996 대구지사 052-768-8008 목포지국 0631-29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1-3829 영동지사 0294-653-1513 대전지사 032-451-3261 대전지사 042-925-1306 안산지사 0345-411-4590 전주지사 0561-747-0106 광주지사 0551-84-0736 광주지국 0415-95-000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36-30-5097 포항지국 0542-262-7243 울산지사 052-242-2533 광주지국 0527-343-028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소책새마을, (사)감로심장회